

HRD 7월의 이슈

-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심의·의결
- 고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의 닛을 올린다
- MZ재직자, 디지털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관심 높아

HRD 동향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07 Vol.88
July, 2023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7월 중 산재보험
적용 확대
14종 ⇨ 18종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
80~100%



'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 재직자
63.5%



5월 고용시장,
최고 고용률 달성
35.4만 명

산재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개정 시행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등으로 기존 법을 보다 유용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이러한 시행에 발맞춰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다 든든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

VOL. 88
JULY, 2023



COVER STORY

개정법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더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책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CONTENTS

HRD 스페셜

- 04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의 심의 · 의결
- 05 고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의 닳을 올린다
- 06 직무훈련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제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07 시외버스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HRD 현장

- 08 MZ재직자, 디지털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관심 높아
- 09 청년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청년, K-디지털의 날개를 달다
- 10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현황을 담은 통계연보 발간
- 11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12 고교생에게서 기술 한국의 미래 엿본다
- 13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 '이곳'을 참고하세요
- 14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 2분기 발간
- 15 직능연,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기간과 첫 일자리' 발표
- 17 고용·복지 협업으로 사회 · 경제적 자립 지원

고용 BRIEF

- 18 '23년 5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 19 이달의 키워드 & HRD 생생정보

연구 INSIDE

- 20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방안: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 20 환경산업 인력수급 전만을 위한 통계 고도화 방안
- 21 산업별역량체계(SQF) 개발 및 활용화 고도화 방안 연구
- 21 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 23 반부패 국민공감 직업훈련 모니터링 캠페인

통권 제 88 호

발행일 2023년 7월 12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관리국 052-714-8326

구독신청 및 문의 jycheon47@hrdkorea.or.kr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년 6월 20,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❶「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❷「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14종 → 18종)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 17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❸「고용보험법 시행령」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모법이 개정(’22.12.31. 공포, ’23.7.1. 시행)되어,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❹「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하도록 모법이 개정(’23.1.3. 공포, ’23.7.4. 시행)되어,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 취업 및 채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❺「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 (전) 1,000만 → (후) 위반횟수별 차등 부과(1차 300만, 2차 600만, 3차 1,000만)



고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의 뜻을 올린다



2023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고용행정데이터 전면 개방의 뜻을 올린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9일(목) 14시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용행정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자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담고 있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고용행정통계는 구인·구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관련 데이터를 개방했으나, 제공수준 및 항목이 다소 협소하여 세분화된 추가 분석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방하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은 제공수준을 세분화하고 항목을 확대한 것으로 민간 부문이나 자치단체에서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연구·분석이나 정책개발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현황’은 그간 연령을 10세 단위로 제공하였으나 앞으로는 5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여 사·군·구 단위에서도 지역 청년(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34세)의 실업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행정데이터 기초 데이터셋은 7월 3일(월)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데이터분석시스템(ELDS) 누리집(eis.work.go.kr/elds)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데이터가 핵심 자산인 데이터 경제하에서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는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연구와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민간 수요에 기반해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공 데이터셋 현황 (총31종)

워크넷 (5종)

수치항목	분석항목
①구인현황(월), ②구직현황(월), ③취업현황(월), ④유효구인현황(전체), ⑤유효구직현황(전체)	지역, 산업, 규모, 직종, 성별, 연령, 학력, 고용형태

고용보험 (19종)

수치항목	분석항목
①월별 경력직노동력 이동현황, ②월별 피보험자 현황, ③월별 취득인원 현황, ④월별 상실인원 현황, ⑤사업장 현황(전체), ⑥사업장 성립 소멸현황(월), 실업급여 신청현황, 실업급여 지급현황(월, 분기, 연),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현황(월), 모성보호 지급현황(월), 모성보호 지급자현황(월, 분기, 연) 고용장려금 지원현황(월), 고용장려금 순인원현황(월, 분기, 연)	지역, 산업, 규모, 직종, 성별, 연령, 고용형태, 근속년수, 취득구분, 상실사유, 근로자유형, 이직사유, 기초임금일액, 통상임금, 지원금 종류

직업훈련 (7종)

수치항목	분석항목
①내일배움카드 발급현황(월), ②훈련기관과정 현황(월), ③실업자훈련 실시현황(월), ④실업자훈련 수료율현황(연), ⑤실업자훈련 취업률현황(연), ⑥근로자훈련 실시현황(월), ⑦사업주훈련 실시현황(월)	지역, 성별, 연령, 훈련직종, 훈련기관, 훈련과정



직무훈련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제고



2023년 7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직무훈련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제고**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누리집(www.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랑 누리집(www.gasarang.go.kr)에서 안내한다.

한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2개소*)도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센터는 7월부터 가사·돌봄 관련 직무훈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모두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서울 금천구: 02-6269-1350), 한 국가사노동자협회(서울 영등포구: 1566-6390)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높여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이 지정됨에 따라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

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숙련기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땀흘리며 노력하는 숙련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예비 숙련기술인이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느끼고 미래의 꿈을 그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2023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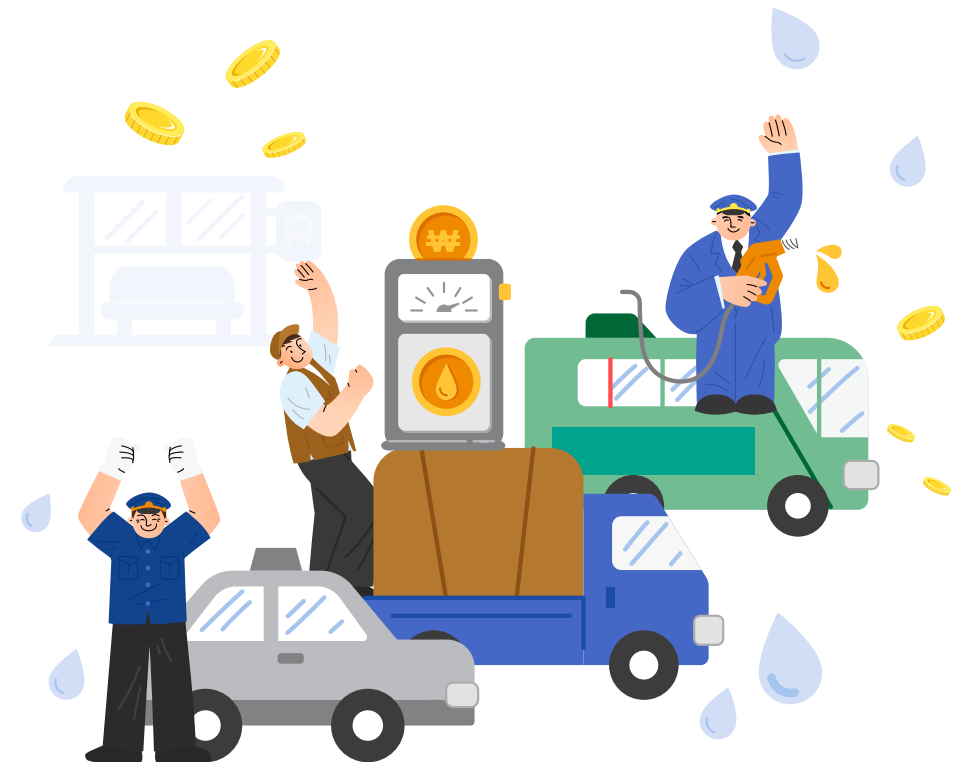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시외버스는 2021.4월, 택시운송업은 2022.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MZ 재직자, 디지털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관심 높아



🔍 2023년 6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MZ 재직자, 디지털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관심 높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엠제트(MZ)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비율 꾸준히 증가
디지털 분야 자격에 주로 관심. 자격과 업무를 연계하는 실용성 집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재직자 55만6천여 명의 응시 현황을 분석해,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 동향을 발표했다.

최근 5년(‘18~‘22년)간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율은 연평균 5.7% 증가했다. 그중 엠제트(MZ) 세대(1980~2005년생) 재직자는 연평균 7.1% 증가해 2022년에는 전체 재직자 응시인원의 59.6%에 달했다.

2022년 엠제트(MZ) 세대 재직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디지털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제트(MZ) 세대의 시험 응시 비율이 높은 자격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웹디자인기사 등이다. 미용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미용과 안전 분야의 응시율도 높았다.

개인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재직 기업 규모를 보면 1,000명 이상 기업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응시자격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81%로, 자격시험 공부 또는 자격증 취득을 업무에 연계하려는 실용적 특성이 강했다.

재직 기업에서 자격을 우대하는 내용으로는 ‘승진·배치 등 인사고과(3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격시험 응시 목적은 ‘자기계발(32.3%)’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수행 능력 향상(25.6%)’이 그 뒤를 이었다.

김혜경 능력평가이사는 “국가기술자격에서도 엠제트(MZ) 세대의 특성이 반영돼 디지털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라며, “디지털 기반 평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시험으로 자격의 현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엠제트(MZ) 세대 재직자 시험응시자들의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시험 재직자 응시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증가율
재직자	445,934명	442,307명	451,113명	557,423명	556,232명	5.7%
MZ세대	251,974명	252,209명	257,407명	326,632명	331,255명	7.1%
비율	56.5%	57.0%	57.1%	58.6%	59.6%	-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시험 재직자 응시 현황

구분	순위	종목명	구분	순위	종목명	구분	순위	종목명
기사	1	화학분석기사	산업기사	1	정보처리산업기사	기능사	1	웹디자인기능사
	2	정보처리기사		2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	미용사(메이크업)
	3	일반기계기사		3	위험물산업기사		3	미용사(네일)
	4	식품기사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4	조주기능사
	5	품질경영기사		5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5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청년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



🔍 2023년 6월 16일, 고용노동부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청년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6월 16일(금) 14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서울캠퍼스에서 8기 수료식에 참석해, 830명의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 5명에게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수료식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삼성전자 시알(CR)담당 박승희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코딩 교육과 실전형 연구과제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8년 12월 시작한 이후, 7기까지 총 4,732명이 수료하고 그 가운데 3,979명이 취업(84%)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권기섭 차관은 교육생들을 축하하면서, “장관상 수상자 중 체육학 및 어문학 계열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비전공자로서 정보기술(IT) 계열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년에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협업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에게 양질의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K-디지털의 날개를 달다



🔍 2023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청년, K-디지털의 날개를 달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8일(수), 4월부터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디지털 융복합 시대의 디지털 혁신 서비스 개발’ 주제로 케이티(KT), 인텔 등 다양한 훈련기관 출신의 172개 팀, 832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이날 오전 팀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오후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등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을 받는다. 이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개발했다. “지피티(GPT)를 이용한 은행의 지능형 파트너 콜봇”, “교통사고 처리 어시스턴트: 내 손 안의 몇 대 몇, 히어로(HereLaw)”,

“위치정보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한 그림일기 앱 서비스”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 프로젝트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국적 수화 실시간 통역 플랫폼”, “노년층 치매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교통약자 유형별 경로안내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권기섭 차관은 “우리 청년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 감탄했다.”라면서, “정부에서도 K-디지털 트레이닝 심화과정 등 양질의 훈련과정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들이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현황을 담은 통계연보 발간



2023년 6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현황을 담은 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209만여 명 응시, 73만 9천여 명 자격 취득
인구 구조, 사회환경 변화 등이 시험응시 등급 및 종목에 영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민에게 국가기술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2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현황을 담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6월 21일 발간했다. 연보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544개 종목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209만 4,718명으로, 전년 대비 15.9%(394,618명) 감소했다. 자격 취득자는 73만 8,935명으로 전년 대비 12%(100,827명) 감소했으나, 자격 취득률은 35.3%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자격등급별 응시인원은 기능사가 41.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23.4%), 기사(21.7%), 산업기사(11.4%), 기술사(1.0%), 기능장(1.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9%(912,59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16.5%), 10대(14%), 40대(12.9%), 50대 이상(12.7%) 순이었다.

연보를 통해 나타난 특징들을 보면 ▲인구 구조 변화 ▲법령 개정 ▲사회환경 변화 등이 시험응시 변동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의 변화는 등급별 응시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 졸업생과 재직자 등이 주로 응시하는 기사 시험응시 비율은 2018년 17.3%에서 2022년 21.7%로 증가했으나,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기능사 시험응시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41.5%로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관련 분야 시험응시

비율이 상승했다. 2022년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은 각각 54,500명, 29,934명으로 해당 등급에서 1~2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전문 관리자를 정해짐에 따라 건축 분야 자격시험의 응시인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축설비기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2018년 1,827명에서 2022년 7,559명으로 연평균 42.6% 증가했으며, 건축설비산업기사도 2018년 807명에서 2022년 2,978명으로 연평균 38.6% 증가했다.

사회환경 변화로 응시자가 급감하는 종목도 있다. 세탁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2018년 8,683명에서 2022년 534명으로 연평균 50% 감소했는데, 프랜차이즈 및 셀프 세탁업체의 증가로 인한 전문인력 필요성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보인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인원도 2018년 10,044명에서 2022년 1,114명으로 연평균 42.3% 감소했는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보화 관련 자격의 가산점이 폐지돼 응시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 김혜경 능력평가이사는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현장성 있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운영으로 국민의 자격 효용성이 높아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자료는 큐넷(www.Q-net.or.kr→기술자격시험→자격검정통계→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메뉴)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국가기술자격통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23년 6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기관 참석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산업별역량체계 공유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방안 모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 위드스페이스에서 ‘2023년 상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를 6월 22일 개최했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반기별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국정과제인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문화 확산, 산업별역량체계(SQF) 구축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체계 강화와 산업현장 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확산을 위한 상호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인의 교육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 이력, 업무 경력 등을 직무능력 형태로 자료화하여 통합·활용하는 제도다. 개인은 본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시스템에 저축·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시스템에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과 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직무 중심 채용과 인사 배치에 개인의 인정서를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중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과 인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을 모집하고 관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 채용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직무와 무관한 편견 요소가 아닌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며 구직자와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인재 채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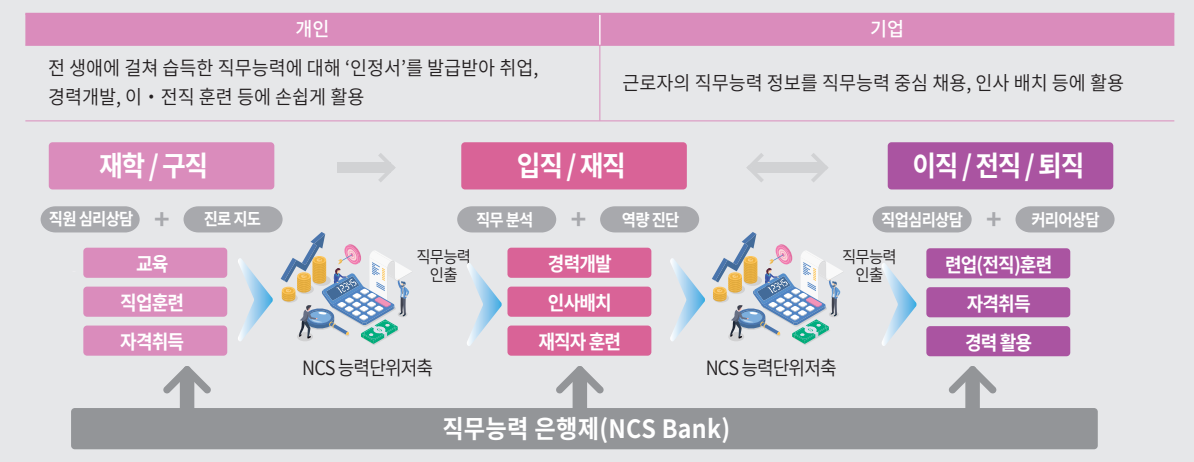
공단은 공정한 채용문화가 기업에 자율적으로 확산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공정채용 컨설팅을 제공한다. 산업별역량체계는 산업 분야별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직무와 능력을 구조화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훈련·학위·자격·경력 을 연계하는 체계를 말한다.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직무역량과 수준이 달라, 산업별역량체계는 개인과 기업의 직무능력 개발에 필수적이다.

공단은 산업별 역량체계 고도화로 직무능력은행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산업현장에서 활용·확산할 수 있도록 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진실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중요성이 부각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더욱 협업체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직무능력은행제(NCS Bank)

○ 국민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저축·통합 활용하여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는 전국민 생애경력관리 스마트플랫폼 구축





고교생에게서 기술 한국의 미래 엿본다



2023년 6월 21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고교생에게서 기술 한국의 미래 엿본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10월 폴리텍에서 바이오, 기계설계 등 8개 분야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 개최



미래 기술 인재로 성장할 고교생이 모여 기술 역량을 겨룬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은 올해 하반기 8개 캠퍼스에서 8개 분야의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를 개최한다고 6월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7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폴리텍 캠퍼스에서 분야별로 분산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디자인 △바이오 △기계설계/모델링(modelling·모형화) △캐드(CAD·컴퓨터응용설계) △전기제어시스템제작 △3D프린팅 △전자자동차제어 △캠(CAM·컴퓨터응용제조) 등 8개 분야에서 경합을 벌인다. 이 중 바이오와 3D프린팅 분야는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린다.

분야별 우수한 성적을 거둔 85명(팀)을 선정해 총상금 1천6백여만 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폴리텍 이사장상 등을 시상한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폴리텍 누리집(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는 기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비 기술인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 2007년 처음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93개교 336명이 참가해, 76명(팀)이 입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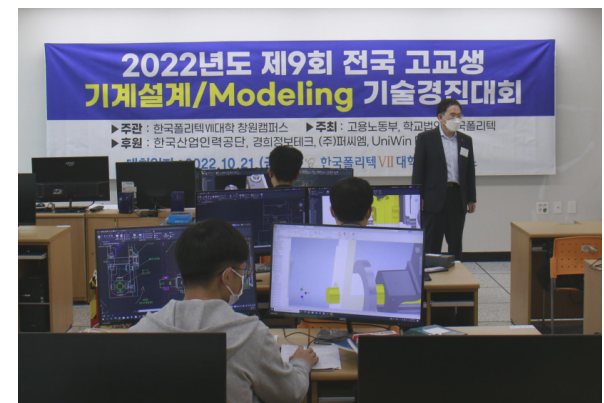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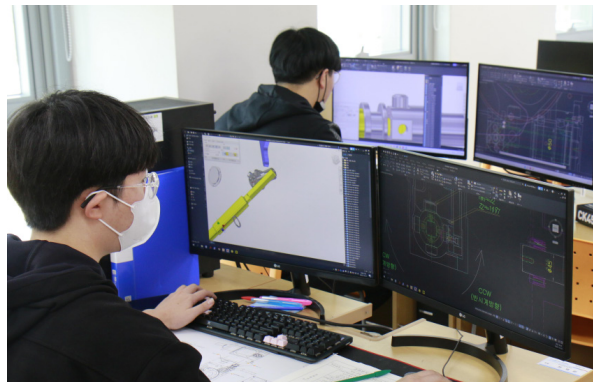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술력을 거두고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도약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교생들의 많은 도전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회일정 및 시상내역

참가자격	고등학교 재학생
주제	환경보호 포스터
접수기간	2023. 9. 5(화) ~ 9.12(화) 24:00시
참여방법	웹하드에 접속 (http://kopo.webhard.co.kr)
제출물	완성작 파일 2종 + 신청서 1종 총 3종 ZIP 파일로 제출 _A3 사이즈, 200dpi 해상도 PDF 파일 _A4 사이즈, 72dpi 해상도 PSD 파일 _참가신청서 1부 _제출시 파일명은 [학교명_학생이름]
신청서	대학 홈페이지 다운로드
심사발표	2023. 9. 26(화) 15:00 대학 홈페이지 발표
시상내역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1명 70만원 상품권 금상 1명 50만원 상품권 동상 5명 10만원 상품권 은상 2명 30만원 상품권 장려상 10명 3만원 상품권 각 부문별 지도교사상

주최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캠퍼스



▲ 지난해 10월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개최한 ‘제9회 전국 고교생 기계설계/Modeling 대회’ 참가자들의 모습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 ‘이곳’을 참고하세요



2023년 6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 ‘이곳’을 참고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된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38편을 시각화해 워크넷(www.work.go.kr)에 카드뉴스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게시처 : 워크넷 → [직업·진로] → [신직업·미래직업] → [카드뉴스]게시판

카드뉴스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신직업과 미래직업을 접하도록 직업선정의 배경과 직업 개요, 필요한 역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공모전에서 일반부와 청소년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메타버스 배리어프리 설계사’, ‘해양도시 관리자’를 포함한 총 14개 수상작, 2021년 공모전 청소년부 최우수상 수상작 ‘메타버스 데이터 마케터’, ‘우주 건축가’ 등 14개 직업, 그리고 2020년 공모전 최우수상작 ‘크리에이터 광고 관리자’ 등 10개 직업이다.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디지털 전환, 친환경, 코로나 이후 시대 등 변화된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회 개최되었다.

제4회 공모전은 올해 8월에 개최되며, 공모 주제는 ‘한국 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하고 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또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와 워크넷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 2분기 발간



2023년 7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 2분기 발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 19개 종목의 산업 동향 분석 | 사회적 수요 증가로 관련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인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토목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 19개 종목의 산업동향과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를 7월 3일 발간했다.

공단은 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분기별로 선정해, ‘자격Q’를 통해 종목별 응시목적과 현황, 취득 방법, 우대현황 및 고용 전망 등을 제공한다. 2분기에는 ▲토목(8개 종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11개 종목) 등 총 19개 종목이 선정됐다.

토목 분야 자격은 건물, 도로, 댐 등 공사 현장의 지형, 지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사를 기획하고, 토목구조물을 안정적·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검증한다. 빈번해진 한반도 내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고 노후화된 시설물과 사회 인프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구조기술사 및 안전진단 전문가에 관한 시장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토목기사 자격 필기시험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 명 이상이 응시했다. 2022년 시험 응시생은 10,774명으로 2018년 대비 6% 증가했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자격은 사진측량, 원격탐사, 위치추적 확인 등 정보기술을 사용해 지형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분석·설계하는 역량을 검증한다. 지형공간정보는 건설, 국방, 안전, 기상, 농업, 게임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활용되는 만큼, 관련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취득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도제작기능사 자격 필기시험의 응시 인원은 2018년 441명에서 2022년 1,218명으로 176% 증가하는 등 최근 급상승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됐다.

공단은 또한 2022년도 토목 및 지형공간정보 자격 19개 종목의 시험 응시인원 29,437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58.2%는 ‘취업준비생, 학생, 구직자’였으며, 응시목적으로는 46.9%가 ‘취업 및 창업 등’ 노동시장 진출을 꼽았다. 응시자별 학력 수준으로는 대학교 이상이 70.9%였으며, 특히 토목 분야는 81.9%로 나타났다. 그밖에 연령별로는 20대가 54.2%로 가장 많았으며, 30·40대 28.1%, 10대가 9%였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토목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도 반영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격Q’는 큐넷(www.Q-Ne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복지센터,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대학일자리센터 등에도 배포됐다.



Part. 3
01 토목기사/산업기사

도로, 공항, 철도, 하천, 교량, 댐, 터널, 상하수도, 시면, 항만 및 해상 시설물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는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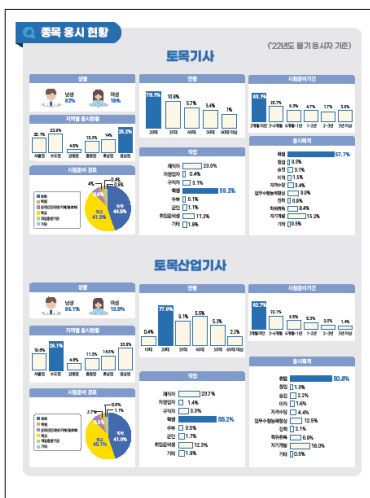
자격 취득 방법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필기시험	1. 종합학력 2. 측량 3. 수리학적 설계 4. 물리학적 설계 5. 토목공학 6. 산업안전	1. 종합학력 2. 측량 3. 수리학적 설계 4. 물리학적 설계 5. 토목공학
실기시험	토목공학 및 시설 설계	토목공학 및 시설 설계
필기시험	전체 120분(합 140점)	전체 120분(합 140점)
필기시험	합격률 34.2%	합격률 34.2%
필기시험	합격률 19.1%	합격률 19.1%

1. 자격 취득 현황 (2018~2022년)

연도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2018	10,118	2,041
2019	10,304	2,037
2020	9,940	2,006
2021	11,523	2,946
2022	10,774	2,014

주요 유망시장

- 중대형건설사업의 입찰 및 자격(표준)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의 입찰(건설사업) 지원
- 지하철역사 등 대형 토목, 건축물 등의 건축 시 필요한 총괄관리자의 자격으로 인정
- 건설현장에서의 토목 기술(건설현장에서의 지형측량, 측량, 토목)을 수행하는 직무
- 전문건설업(건설업) 등록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으로 인정



직능연,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기간과 첫 일자리' 발표



2023년 6월 30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직능연, ‘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기간과 첫 일자리’ 발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9부터 3일간 제주에서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 개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기간이 짧으며 전공별 미취업은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6월 30일(금) 『The HRD Review 26권 2호 조사·통계 브리프(대졸자 노동시장 이행 기간과 첫 일자리)』를 통해 대졸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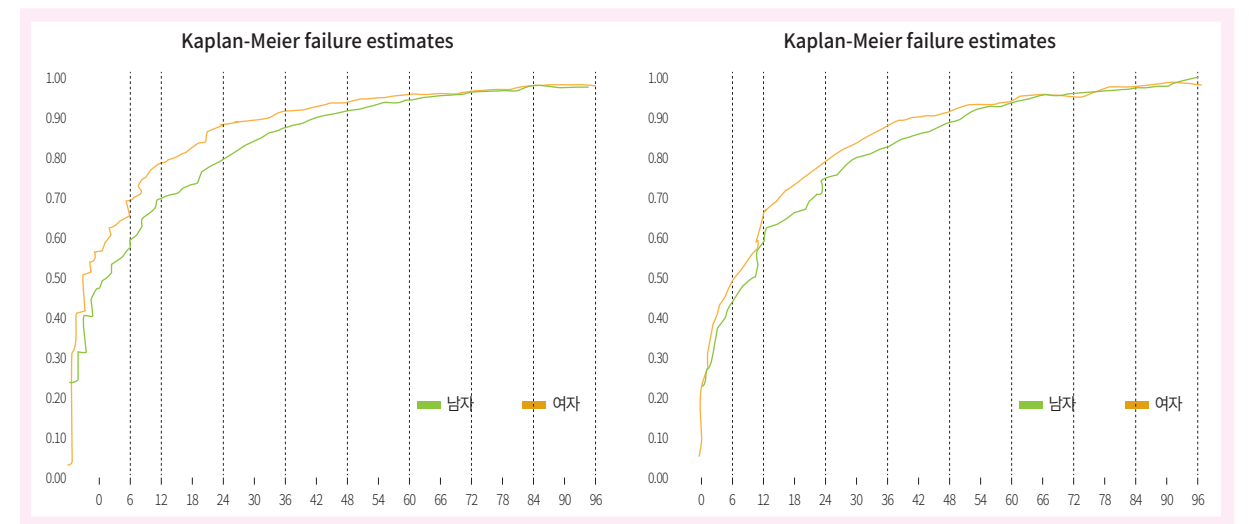
- 4년제 대학 졸업 여성의 취업 확률은 3개월 이내 (36.2%), 6개월 이내(44.8%), 12개월 이내(61.7%), 24개월 이내(79.1%)로 나타나, 4년제 대학 졸업 남성 [3개월 이내(31.4%), 6개월 이내(39.2%), 12개월 이내(56.3%), 24개월 이내(73.6%)] 보다 항상 높으나, 남녀 간 구직기간 차이는 전문대학 졸업생보다는 낮음

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간이 전 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구직 기간의 차이를 다시 학력별로 세분하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남녀간 차이가 더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전문대학 졸업 여성의 취업 확률은 졸업 후 3개월 이내 (50.4%), 6개월 이내(58.1%), 12개월 이내(71.2%), 24개월 이내(85.8%)로 나타나, 전문대학 졸업 남성[3개월 이내(38.9%), 6개월 이내(45.8%), 12개월 이내(61.9%), 24개월 이내(76.4%)] 보다 항상 높은 비율을 유지함

그림 1. 전문대학 졸업 남성과 여성의 구직기간에 따른 취업 확률

그림 2. 4년제 대학 졸업 남성과 여성의 구직기간에 따른 취업 확률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2017~2021.

주: 그림 1]은 전문대학 졸업자, [그림 2]는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을 포함함. 졸업 후 직업을 가진 적이 있거나 계속 구직 상태인 경우를 모두 포함함. 졸업 전 구직을 한 경우 구직기간이 없는 것(0)으로 간주함. 구직기간이 8년(9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중치 사용.

대학 졸업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정규직·고임금·전공일치)로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표본의 80%가 취업 경험이 있으며, 그 중 65%는 정규직, 35%는 고임금(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로 정의함), 54%는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고임금 일자리 표본에서 남성 비율이 59%로 여성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전문대 졸업자는 표본의 83%가 취업 경험이 있으며, 그 중 66%는 정규직, 23%만이 고임금, 54%는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를 첫 일자리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고임금 일자리 표본에서 남성 비율이 68%로 여성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즉, 취업/정규직/전공일치 일자리 비율에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큰 차이는 없으나 고임금 일자리 비율은 4년제 졸업생이 전문대 졸업생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임금 일자리 표본을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 전문대 졸업자에선 공학계열 비중(50%)이 가장 높고, 4년제 졸업자에선 인문사회계열(39%)과 공학계열(33%)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취업 상태의 표본을 살펴본 결과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높은 비중(전문대 40%, 4년제 5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큰 원인은 근로여건 불만족이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대부분이 월 급여 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 대졸 청년층이 첫 직장을 관두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급여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전문대 졸업자는 50% 이상이 근로 여건 불만족으로 첫 일자리에 퇴직함. 두 번째 퇴직 이유로는 전문대졸 남성은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11.4%)이며, 전문대졸 여성은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18.3%)임
- 4년제 대학 졸업자도 근로 여건 불만족이 퇴직 사유로 가장 큰 비중(남성 46.9%, 여성 45.2%)을 차지했으며, 두 번째 이유로는 전문대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남성은 일자리 전망(10.4%), 여성은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계속 등)(18.0%)를 꼽음.
- 한편, 근로 여건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대부분(79.9%)은 첫 직장 월 급여가 200만 원 미만이며 150만 원 미만(42.1%)과 100만 원 미만(11.5%)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근로 여건 불만족의 구체적인 이유는 고용이나 근로 형태보다는 임금인 것으로 판단됨.



고용·복지 협업으로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2023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고용·복지 협업으로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통합사회서비스 제공,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대상자,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취업을 통한 자립지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본부 및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자체(광역시 9개, 기초 3개), 청소년 지원센터(5개), 다문화가족센터(3개), 경찰서(1개),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취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찾아내 고용·복지·금융 등 적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였다는 설명이다.

- ① 학교밖 청소년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리던 ㄱ씨(18세/ 인천센터)는 인천동구청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희망진로를 설정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 ② 코로나19로 폐업 후 조건부 수급자가 된 ㄴ씨(62세/ 광주센터)는 광주시 추천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였 으나, 계속되는 주거·건강 문제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없어 광주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연계 하여 주거문제부터 해결받고 있다.
- ③ 성남분당경찰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ㄷ씨(44세/ 성남센터)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였 으며, 오랜 기간 경력단절로 자신감과 취업역량이 떨어진 ㄷ씨에게 전담 상담사의 심층상담과 맞춤형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지속하여 우리사회 약자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 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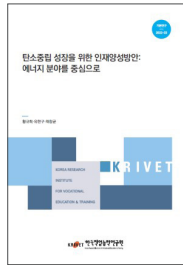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방안: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 🔍 2023년 2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황규희, 유한구, 채창균
-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탄소중립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방안: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에너지 세부 영역별 글로벌 기술변화 추이 및 국내 기술수준 분석, 산업현황 분석, 델파이 조사를 통한 수요 분석 등에 기반하여, 에너지 인력양성 방안 제시
- 에너지 부문 내 인력양성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인력양성 개선 시급사항과 개선 중장기 방안 제시

☑️ 주요목차

- 탄소중립 추진과 인력양성
- 에너지 부문 인력양성 개선 요구조사
- 에너지 분야 기술변화와 인력 이슈
- 인력양성 개선 방안



환경산업 인력수급 전만을 위한 통계 고도화 방안



- 🔍 2023년 2월, 환경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 이상돈, 황성수, 이상준, 정지운, 설귀환, 김안국, 손수정, 이의규
-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환경산업 인력수급 전만을 위한 통계 고도화 방안**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환경산업통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환경통계 고도화를 통해 신뢰성 높은 환경산업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환경산업 인력정책 수립의 토대 마련
-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환경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전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업 연관분류와의 연계표 구축을 통해 환경산업의 범위를 추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한편, 환경산업통계 모집단을 대상으로 신뢰성 높은 인력현황 파악을 위한 표본 도출 방안 제시

☑️ 주요목차

- 환경산업 현황 분석
- 환경전문인력 중장기 수요 전망
- 환경전문인력 실태조사
- 환경인력 통계 고도화 방안
- 주요국의 녹색일자리 현황



산업별역량체계(SQF) 개발 및 활용화 고도화 방안 연구



- 🔍 2022년 12, 한국산업인력공단
- 🔍 대우경영컨설팅
-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산업별역량체계(SQF) 개발 및 활용화 고도화 방안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SQF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 확산 장려를 위한 연차별 SQF 구축 및 활용 전략 마련, SQF 활용의 기대성과 도출
- 다른 직업능력개발제도와의 연계 활용 방안 마련

☑️ 주요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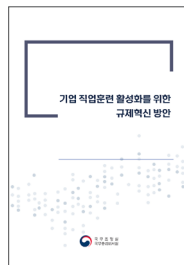
- SQF 구축 현황 및 국내 · 외 사례 조사
- SQF 활용 제도 · 정책 수단 구체화 및 기대효과 제시
-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SQF 구축 전략 및 계획
- 직무 중심 인력양성을 위한 SQF 활용 가이드 개발 마련



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 🔍 2023년 2월, 국무조정실,
- 🔍 제이어스컨설팅
- 🔍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이콘 및 제목을 클릭하면 **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향후 저탄소 ·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규제혁신 쟁점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 필요
- 구체적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유연한 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제도 관련 규제혁신 쟁점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

☑️ 주요목차

- 직업훈련 지원 제도의 현황 및 최근 동향
- 개인 지원 제도 전반의 규제혁신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 기업 지원 제도 전반의 규제혁신 관련 쟁점 및 개선과제
- 해외의 직업훈련 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직업훈련 인프라 전반의 규제혁신 관련 쟁점 및 개선 과제



- 6.2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6.28. 2023년 제4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발표 및 시상식 개최
- 6.30.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6.13. 2023년 훈련 모니터링 고객패널 간담회 개최
- 6.16. HRD FLEX 우수사례 공유의 장
- 7.6. 22년도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평가점수 1차 발표
- 7.7. 2023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및 기특한 자단 위촉식
- 7.10.~7.11. K-디지털 플랫폼 워크숍 개최
- 7.10. '23년도 컨소시엄, 자산맞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통합지표 설명회
- 7.13.~7.14. 2023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통합 워크숍



- 6.8. 다담 EMB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 6.12. 국방부 차관 특강 포럼
-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7.3.~7.27.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심사 신청·접수
- 7.7. 2024년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성과평가 계획 공고
- 7.28. 원격훈련과정 4차 정기 심사 결과 발표
- 7.31. 5~7차 훈련이수자평가 운영
- ~7.31. 7월 K-DT,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8과정 프로젝트 평가 운영



- 7.28. 한국직업사전 발간



- 6.16. 2023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1차 워크숍
- 6.16. 한국직업능력연구원-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식
- 6.20. 2023년 지역훈련수요조사 제5차 심층조사 역량강화 세미나
- 7.5.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정책 현황과 해법” HRD 포럼
- 7.12. 학습부진 청소년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관계자 연수
- 7.13. 2023년 직업계고 학점제 컨설턴트 운영 성과보고회
- 7.24.~7.26. 직업계고 학점제 컨설턴트 신규 양성 연수



- 7.2.~7.15. 2023년 재학생 Summer School 운영
- 7.17.~9.15. 제15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개최
- ~7.31. 제7회 벤처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참가자 접수
- 7.14.~10.27. 2023년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 개최
- 7월 중.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 신입생 모집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객패널

정기적으로 훈련수요자의 시각에서 현장의견과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훈련 사업별 현장전문가 집단



훈.품.모.터(카카오톡 채널)

훈련품질 모니터링 관련 다양한 자료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카카오톡 채널



훈품모터
바로가기



월간HRD 동향

고객접점서비스기관 및 주요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하고 신뢰성있는 HRD 정보를 공유하는 월간소식지



월간HRD동향 신청하기

월간HRD동향 둘러보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직업훈련
모두 함께 만들어요

훈련품질관리국에서 실시하는 국민공감 직업훈련 모니터링을 소개합니다. 부패 의심 상황발생시 상시소통채널창구를 통해 훈련품질관리국으로 알려주세요.)



훈련품질관리국과 국민이 함께하는

반부패 국민공감 직업훈련모니터링 캠페인

모니터링 업무는 투명하게!
결과는 탄탄하게!



온라인조사단

적시성,현장성 강화 도모를 위한 수시단발적으로 운영되는 훈련모니터링 온라인 조사단



훈련 신호등

• 정기적으로훈련사업 (사업주,컨소시엄,자산,학습조,내배카,원격훈련)의 훈련동향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간행물



원격훈련 헬프라인

원격훈련 관련 개선의견, 부정·부실 제보사항을 신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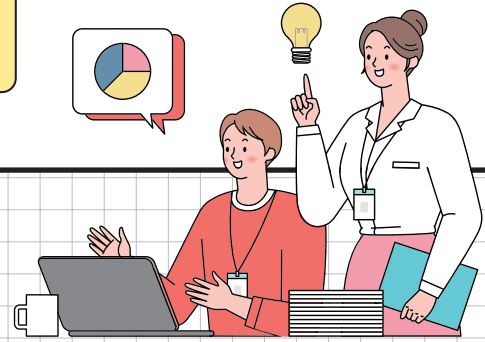


원격훈련 헬프라인
바로가기

모니터링 업무는 투명하고
결과는 탄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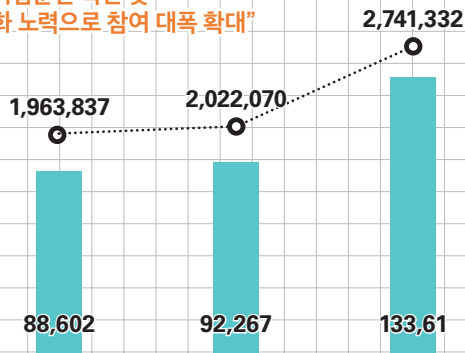
기업과 근로자의 성장에 힘이 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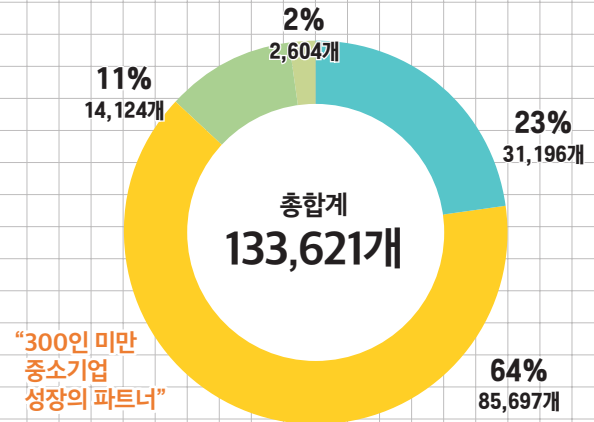
■ 실시기업(개) ● 실시인원(명)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노력으로 참여 대폭 확대”



[전체 참여기업 규모별 분포(2022)]

■ 5인 미만 ■ 5인~49인 ■ 50인~299인 ■ 300인 이상



[사업주훈련 관련 국정과제]

1 기업직업훈련카드 (접근성 확대)

중소기업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를
제공하여 훈련 접근성 확대

2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선택권 확대)

다양한 훈련과정을
OTT 방식으로 묶음 제공하여
훈련 선택권 확대

3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자율성 확대)

훈련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자체훈련 시 훈련 계획 내에서
훈련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2022년 훈련방법별 주요 훈련분야 TOP 5]

참여인원 기준

대규모기업

우선지원기업

총무·인사

정보기술

1
순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수요 상승”

정보기술

2순위

보건

기획사무

3순위

기획사무

보건

4순위

보육

금융

5순위

경비

[일자리 지원 성과]

■ 채용예정자 취업인원 ■ 채용예정자 수료인원 ● 취업률

